

강이야기  
6  
River & Culture



전운성 |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jeonus@kangwon.ac.kr)

# 메콩강, 실로 위대하나 가난한 강

메콩강하면 왠지 우리와는 친밀감이 느껴지는 강이 아닐까. 월남전쟁에 수많은 우리 국군이 참전하여 피땀을 흘렸으며, 또한 월남전 특수로 우리 경제가 일어서게 된 계기가 된 곳이기 때문이리라.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상호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사실 1990년대 중반 무렵 이 지역에 처음 방문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선입감이 컸다. 가난, 정치적 혼란,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하의 불합리한 면과 모순 등이 뇌리에 차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크메르제국이 남겨 놓은 앙코르 와트, 미얀마 파간의 불탑군, 라오스의 인류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된 루앙프라방, 베트남의 하롱베이나 메콩델타의 자연, 태국의 불교문화 등의 문화유적 자산이 마음 한 구석에 살아 있을 정도였다. 어떻게 보면 이들 문화유적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가난의 어려움을 달려주는 마음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월남전쟁의 잔재인 각종 지뢰가 길에 깔려 있어 접근하기 힘들 거라고 하였다. 특히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에 들어간다는 것은 21세기에 남은 탐험지대를 가는 듯

한 당치도 않은 이야기들뿐이었다. 그러나 막상 와본 이들이 나라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위험한 곳이라는 커녕 무한한 자원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림 1) 메콩강 유역도



〈그림 2〉 메콩강유역 통레이 호반의 인류 최대의 걸작품인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처음에는 이 지역의 이국적인 풍물을 즐기는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하여 차츰 자연스럽게 학술조사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농촌개발전문가로 이 지역에 장기간 파견되어 빈곤퇴치를 위한 활동으로 그 목적이 바뀌었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메콩강을 베트남의 델타 하구에서 시작하여 라오스와 중국 국경까지 약 2,000km의 강줄기를 오르내렸다. 이들 유역국가들의 산악지대는 물론 평야지대의 오지 농촌현장을 답사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음에 압담함과 희망이 교차하였다.

한마디로 메콩강은 실로 위대하였으나 가난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메콩강은 중국의 청해성과 티베트 고원지방에서 발원하여 중국 운남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남류하는 약 4,800km로 세계 10위의 국제적인 대하천으로 이들 유역에는 미국 인구와 맞먹는 2억 5천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과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약 5,500만명이 절대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림 3〉 캄보디아 건기의 평야지대에서 저녁 무렵 귀가하는 물소떼와 농부들



〈그림 4〉 공책 대신 노트철판으로 공부하는 캄보디아의 어린 학생들

기본적인 생활만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역지라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없이 목격하였다. 어린이의 해맑은 천진한 웃음을 마치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 생활 속의 빈곤상은 행복함이나 생활만족도와는 거리가 진정 너무 멀었다.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높은 농촌인구를 안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메콩강이 지나가는 각국의 농촌인구는 중국 운남성,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모두 약 70% 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농촌지역 거주인구의 대부분은 태국 등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국제빈곤선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1일 1달러 이하(구매력 기준 1일 4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림 5) 캄보디아 농촌 생활용수를 쓰기 위하여 연못에서 물을 끄는 모습



(그림 6) 물소를 타고 노는 라오스 어린이

라오스는 1996년 빈곤퇴치를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우리의 현재 경제사정은 그 옛날의 수렵 채

취경제 상태임을 인정하자”는 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렵 채취경제 시대라고 함은 1만년 전의 모습과 같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산업화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의미로 말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정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앞으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베트남의 메콩델타와 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평야, 태국, 미얀마, 중국 등을 심층 깊게 답사하여 메콩강 유역주민의 삶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나로서는 나름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메콩강 유역의 6개국을 보면, 자유민주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두개 왕국, 사회주의를 기본노선으로 하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의 3개국, 강력한 군사정권이 통치하는 미얀마 등과 같이 상이한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서로 이웃하고 있다.

메콩강유역은 태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거의 같은 길을 걸어 왔다. 19세기 서구열강의 식민지 생활과 2차 대전 이후 메콩강의 빠른 물결처럼 이 지역은 사회주의화의 길을 따랐다. 즉, 1975년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이 공산화가 되었다. 이미 공산화된 중국을 포함하면 태국을 제외하고는 인도차이나 반도는 붉은 깃발이 압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도미노현상이 한반도까지 밀려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등, 그야말로 격동 그 자체였으며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충격이자 위기였던 것이다.

1975년 봄 월남의 사이공을 함락한 공산 베트남정권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남베트남 전 지역에 사회주의 제도를 강력하고도 철저히, 그리고 빠르게 이식시키기 위하여 훈련된 개혁요원을 대량으로 남베트남에 파견하였다. 특히 상공업의 중심지인 사이공시와 농업 중심지역인 메콩델타가 그 개혁의 중심 대상지였던 것은 말할 나위 없었다.

이때, 자유를 찾아 탈출한 200만명이 넘는 보트피플(표류난민)들은 현재 탄탄한 부(富)와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속속 돌아오고 있다. 또한 미국 등에 살면서 베트남 내의 친척 등에 송금을 하는 등, 자신의 조국에 투자하여 오히려 경제



〈그림 7〉 베트남 메콩델타의 수로를 이용한 농촌생태관광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해외로 탈출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귀국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탈출했다가 귀국한 사람과 남아있던 친척들의 감격적인 해후를 매일 공항에서 직접 볼 수 있다니 핏줄은 얼마나 고귀하고도 진한 것인가! 베트남 농독마인 공산당 서기장이 최근의 베트남 경제성장은 이들의 애국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자급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의 배신자가 애국자로 바뀐 것이다.

한편, 1975년의 폴 포트의 캄보디아 정권 장악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그는 민주 캄푸치아로 국명을 바꾸고 좌파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을 강화하여 반대파를 숙청하고 미국과의 외교단절,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농민천국을 건설한다면서 1979년 1월 베트남군이 프놈펜을 함락할 때까지 3년 6개월 20일간 자국민을 대상으로 200만명 이상이나 되는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소위 킬링필드라고 하는 악명을 남기었다. 이어진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펴 인민생활은 날로 피폐해졌다.

잘못 선택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기화는 이 지역 주민의 삶을 최하위 수준까지 끌어내려 먹거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다행히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약속이나 한 듯, 정경분리에 의한 과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결코 가깝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난과 풍요의 결과는 단순하고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제도과 체제를 여하히 선택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한반도에서의 한강유역의 변영과 대동강 유역에서의 빈곤현상도 이를 말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갖은 고초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멀고 먼 이곳 메콩강까지 와서 새 삶을 꾸리기 위하여 한국으로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최근 메콩강유역 국가들에 대한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이고 대량의 원조프로그램은 가난퇴치의 원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UN은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거시적인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메콩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류 지역인 중국도 이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변호관을 단 공사차량들이 마치 자신의 영토 연장선상에서의 일처럼 각종 건설원조를 부단히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도 경제대국답게 거액의 자본을 지원하며,

이 지역의 큰 원조 제공국으로서의 역할을 뽐내고 있다.

기타 서구 여러 나라들도 자신의 역사적 기득권을 앞세우며 이 지역에 자신의 힘을 이식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함을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후발 원조공여국가로서 얼굴을 내밀며, 우리의 귀중하고 따끈따끈한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개발을 전수하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지역은 선진 각국의 경제원조 각축장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바, 메콩유역의 괴원조국은 선진국의 역학관계를 잘 이용하면 보다 빠른 발전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 머지않아 이곳은 가난의 강이 아닌 번영과 풍요로운 메콩강 유역으로 바뀌는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문제는 메콩강 상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 강을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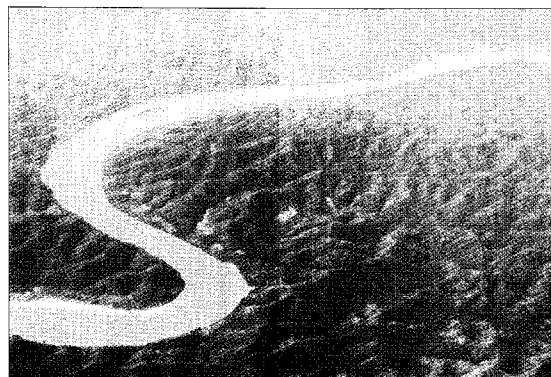
원회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가입을 마루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대한 나라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강만 헤아려 보아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긴 강인 황하, 양자강, 주강, 흑룡강 등은 혼자서 끌어안고 있으며, 그 외에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로 흐르는 많은 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그림 8〉 동남아시아 최대의 폭포인 라오스 영내의 메콩강 콘파평 폭포



〈그림 9〉 라오스 시앙쿠앙주의 돌항아리 평원과 관광객



〈그림 10〉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를 흐르는 메콩강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류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메콩강도 그 총길이의 절반이 넘는 2,500km 정도가 중국대륙 안을 흐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강을 란찬강(瀾滄江)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초대형 댐을 줄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최근 수년간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강 유역 댐 건설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8개의 댐이 완공되면, 중국이 마음대로 방류량을 통제해 사실상 메콩강이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 만완댐 등 2개는 이미 완공되었고, 추후 6개가 더 지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대형 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태국·라오스 국경지대의 어획량은 절반 이상 줄어

들었다. 수량(水量)이 줄자, 베트남의 메콩강 하류 지역에선

남중국해의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민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고 농작물도 시들어갔다.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아온 어느 어부는 한 번 그물을 던지면 30kg씩 고기를 낚아 올렸지만, 지금은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초대형 댐을 잇달아 건설하면서 물고기 씨가 말라 과거의 반에 반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하류지방의 수위가 낮아져 어획량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초대형어인 메기(뾰라복)의 어획량은 크게 줄었다. 매년 5월 태국과 라오스의 어부들이 1개월간 메기사냥을 나서는데, 이의 감소가 크게 눈에 띄고 있다고 한다. 이는 메콩강 하류지방의 600만명 어부의 생활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값싼 중국산 과일과 야채, 전자 제품이 메콩강 항로를 통해 들어와 라오스·태국·캄보디아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은 라오스에 도로를 건설해 주고 수도에 공원과 공연장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중국은 원조가 아닌 투자를 한 셈이었다. 중국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라오스에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들도 몰리면서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즉, 중국이 아시아 최후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던 메콩강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하류 유역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두 나라 이상에 걸쳐 흐르는 강은 전 세계에 263개가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하천의 강물활용과 관련하여 체결된 국제조약 400여건 가운데 37건은 소규모 전쟁 등 무력사용이 개입되었다. 이렇듯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강을 둘러싼 분쟁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강한 나라의 힘의 논리로 강물을 쓸 권리를 주장하며, 때로는 무력으로 강을 뺏기도 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세계는 더 큰 갈등을 느낄 것이며, 이에 물을 둘러싼 분쟁도 더 많아질 것이며, 물이 부족한 곳에서 총이 득세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민지 시대 이전 메콩강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단지 9~13세기 캄보디

아 지역에 있었던 앙코르제국이 메콩강을 기반으로 한 하천 문명을 형성하였다. 식민지시대에는 프랑스가 중국 진출을 위한 수로로서 관심을 가졌지만,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여전히 메콩강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UN 산하의 국제기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당시 인도차이나의 미래를 위하여 개별 영토단위가 아닌 연속성과 전체성의 차원에서 메콩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인접국의 협력과 상호협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검토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5년까지의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기간과 197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콩강에 대한 조사작업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메콩강은 국제하천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접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누가 강의 막대한 자원을 활용하고 장단기적인 개발의 결과를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가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메콩강유역 국가인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은 메콩강 개발과 그에 따른 수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수준, 메콩강에 대한 의존도와 개발전략, 관심 등이 달라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메콩강은 국제하천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접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역국가들은 메콩강 개발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기적이 일어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